

석 사 학 위 논 문

무용 작품
「I AM」에 관한 연구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권

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I AM」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Dance Work 「I AM」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권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I AM」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Dance Work 「I AM」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권혁

권혁의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무용작품 「I AM」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권 혁

본 논문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 3단계를 모티브로 인간이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 「I AM」을 연구, 분석한 논문이다.

현재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빠름과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런 시대일수록 개인 스스로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러려면 우리가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작품을 연구 창작하였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정신의 변화 3단계]에서 초인을 어린아이의 모습에 비유하며 끊임없는 긍정을 통하여 삶을 즐기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니체의 인간정신의 변화 3단계를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입하여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벗어내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드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 「I AM」으로 창작하였다.

작품 「I AM」에서 진정한 초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이처럼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초인으로 설정하였다.

작품 「I AM」은 관객들 스스로 자신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문할 수 있고, 관객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연구 창작하였다. 니체의 철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또 공연 창작물으로써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낙타와 사자의 형태, 습성, 움직임 등을 연구하고 작품에 가장 적합한 움직임들과 이미지들을 도출하여 니체의 인간정신변화 3단계를 모티브로 본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대입하여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하였다.

1장에서는 무용수의 몸과 소품을 이용하여 작품의 주제 및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미지화 하고, 2장에서는 춤 움직임 언어로써 작품의 흐름과 주제 및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움직임언어로, 3장에서는 이 작품의 결론으로 본 연구자가 관객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초인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마음의 여유 없이 끝없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인식하였고, 이 작품을 통해 본 연구자는 무한경쟁 시대에서도 한 순간이라도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길 희망하며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 3단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세상 혹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외적인 것들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고 싶었으며, 인간이 초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이 논문을 연구 창작하였다.

【주요어】 초인, 인간, 의지, 순수함, 사유.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 3단계에 대한 분석	4
III. 연구 작품 개요	7
3.1 안무 의도 및 작품의 형식	7
3.1.1 안무 의도	7
3.1.2 작품형식 및 구조	8
3.2 작품의 구성요소	10
3.2.1 소품	10
3.2.2 의상	13
3.2.3 음악	14
3.2.4 조명	16
IV. 연구 작품 분석	18
4.1 1장: 인내와 순종	18
4.1.1 내용 및 안무의도	18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19
4.1.3 음악	24
4.1.4 무대장치 및 조명	24
4.2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27
4.2.1 내용 및 안무의도	27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8
4.2.3 음악	34
4.2.4 무대장치 및 조명	35
4.3 3장: 나를 바라보다	38
4.3.1 내용 및 안무의도	38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9
4.3.3 음악	42
4.3.4 무대장치 및 조명	43
 V. 결 론	 45
참 고 문 헌	48
부 록	50
ABSTRACT	52

표 목 차

[표 3-1] 연구 작품 I AM 작품형식 및 구조	9
[표 3-2] 연구 작품 I AM 무대 소품	12
[표 3-3] 연구 작품 I AM 사용음악 및 작곡가	14
[표 3-4] 조명의 종류와 효과	16
[표 3-5] 연구 작품 I AM 조명 큐시트	17
[표 4-1] 1장 ‘인내와 순정’ 세부분석	26
[표 4-2]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세부분석	37
[표 4-3] 3장 ‘나를 바라보다’ 세부분석	44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 작품 I AM 소품의상 활용 1	11
[그림 3-2] 연구 작품 I AM 소품의상 활용 2	11
[그림 3-3] 연구 작품 I AM 작품 의상	13
[그림 4-1] 1장 ‘인내와 순종’ 낙타의 형상을 이미지화 한 모습	20
[그림 4-2] 1장 ‘인내와 순종’ 묵묵히 걸어가다	20
[그림 4-3] 1장 ‘인내와 순종’ 사유하는 모습	21
[그림 4-4] 1장 ‘인내와 순종’ 다음단계로의 전환	21
[그림 4-5] 작품 움직임 동선 방향 표시	22
[그림 4-6] 1장 ‘인내와 순종’ 시작 이미지 동선	22
[그림 4-7] 1장 ‘인내와 순종’ 움직임 동선	23
[그림 4-8] 1장 ‘인내와 순종’ 엔딩 이미지 동선	23
[그림 4-9] 1장 ‘인내와 순종’ 무대 후면 우측 상측광 조명사용	25
[그림 4-10] 1장 ‘인내와 순종’ 움직임 조명	25
[그림 4-11]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다음단계로의 전환	28
[그림 4-12]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등의 움직임	39
[그림 4-13]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움직임 1	30
[그림 4-14]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움직임 2	30
[그림 4-15]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하의 탈의	31
[그림 4-16]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시작장면의 동선	32
[그림 4-17]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점진적 움직임 동선	32
[그림 4-18]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마지막 장면 동선	33
[그림 4-19]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마지막 장면	33
[그림 4-20]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전체 화이트 조명	35
[그림 4-21]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탑 조명	36
[그림 4-22]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무대 전체 후상광 조명	36
[그림 4-23] 3장 ‘나를 바라보다’의 전환	40
[그림 4-24] 3장 ‘나를 바라보다’ 타인의 등장	40

[그림 4-25] 3장 ‘나를 바라보다’ 무용수 동선	41
[그림 4-26] 3장 ‘나를 바라보다’ 4인의 타인 동선	41
[그림 4-27] 3장 ‘나를 바라보다’ 엔딩장면	43

I. 서론

본 연구는 무용작품 「I AM」에 대한 표현방법 연구 및 작품분석을 다루고 있다. 무용작품 「I AM」은 초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현대무용 작품으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 3단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경쟁 속에서도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에 두고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 3단계를 거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자 한다.

현재의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무한 경쟁 시대 안에서 빠름과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본 연구자는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 스스로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을 힘을 가진 인간, 즉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연구 창작 하였다.

연합뉴스(2004) 기사에서 “현대인은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다. 빠름은 환영해야 할 미덕이고 느림은 퇴치해야할 악덕이다. 속도에 생존이 달렸다고 믿으며 풍요도 거기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빨리빨리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¹⁾ 라고 하였고, 애틀란타 중앙일보(2020) 기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빠름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도취를 넘어 거의 마취 수준이다. 빠르기에 대해 말하자면, 문명의 기기만 거론대상이 아니다.(중략) 하지만, 빠름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인간 삶에 마냥 유익한 면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달리다 보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삶의 가치들이나 아름다움을 못보고 지나치게 된다.(중략) 앞으로 돌진만 하던 삶에서 잠시 속도를 줄여,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돌아보고 생각

1) 연합뉴스, 임형두(2004) <삶의 균형 위해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 연합뉴스,(2004.08.05.)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진다.”²⁾라고 하였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도성장의 시대를 진입하며 부각되었던 사회현상이 2020년인 지금까지도 똑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당위성을 가지며 본 안무가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 변화 3단계에서 말하는 초인이 이상적인 인간본연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것을 작품의 소재로 표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상적인 인간본연의 모습이란, 성공만을 위해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빠르고 무한 경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다.

작품은 인간정신변화 3단계인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를 1장 ‘인내와 순종’,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3장 ‘나를 바라보다’ 로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힘들고 무거운 것들을 인내 할 수 있는 자세를 낙타의 단계에 대입하였고, 자유를 향한 의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모험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자세를 사자의 단계에 대입하였다.

또 세상의 외적인 것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나를 찾는 자세를 어린아이의 단계로 대입하여 니체가 말한 3가지(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상징을 춤 언어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가 쉬운 이미지들로 나열하여 작품의 전개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또 극적인 효과와 작품의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소품을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 할 것이다.

춤 움직임의 기교보다는 작품의 사실적 표현을 위하여 동작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각 장마다의 주제를 내포 하고 있는 3가지의 상징들을 움직임 언어로 창작하고 또 창작된 움직임에 본 연구자의 의미까지 포함 시켜 작품을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인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낙타의 형상과 모습의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자유를 향한 의지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자의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움직임으로 창작하여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구성 하였다. 3장에서는 초인이 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초인은 오히려 특별한 존재가 아닌 존재하고 있는 인간 그 자체만으로

2) 애틀란타중앙일보, 장석민(2020) <스피드시대 속에서 삶의 걸음걸이>, 중앙일보,(2020,09.26)

도 초인이다. 라는 명제를 담을 수 있도록 표현 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품활용 과 조명, 그리고 무용수의 움직임과 음악의 흐름을 통해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작품으로 구상하고자 한다. 현대무용 창작 작품으로 이미지, 음악, 의상, 주제, 움직임, 표현을 통해 작품이 잘 구성되어 졌는지 연구하여 분석 할 것이다.

다음은 무용 창작 작품 「I AM」에 대한 작품분석으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Ⅱ.장은 작품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3 단계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작품의 의도와 작품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작품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Ⅳ.장에서 각 장으로 구분하고 작품의 의도 및 내용, 표현방법, 무대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작품을 분석한다. Ⅴ.장은 결론으로 이번 작품 연구를 통한 창작과정 과 분석과정을 돌아보고 느낀 점 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 정신변화 3단계에 대한 분석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간정신의 변화를 3단계로 정의했다.

“정신의 세 가지 변신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³⁾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단계이다. 낙타는 누군가 자신에게 지운 무거운 짐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사막을 가로지른다. 인간 내면에도 낙타가 살고 있다. 내면의 낙타는 자신에게 짊어진 무거운 삶의 무게들을 순종적으로 짊어진 채 살아가게 한다. 여기서 짐은 여러 가지를 의미 할 수 있다. 무거운 것에는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것도 있다. 의무, 삶, 도덕, 책임, 윤리, 인생 등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요되는 무거운 짐들이다. 그래서 낙타의 단계는 짐을 지는 정신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무엇이 무거운 것인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줄 알아야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항상 스스로를 확인 할 줄 알아야 한다. 가장 무거운 것을 견뎌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낙타의 태도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기 마련이고, 거기서 우리는 자기절제와 인내, 인고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써 자신의 강한 정신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짐을 한 번이라도 저본 사람이 비로소 명령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사자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3) 프리드리히 니체(2000)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전집13), 정동호(역), 책세상. p.38

두 번째 단계는 사자의 단계이다. 자신에게 가장 무거운 것을 견뎌낸 사람은 이제 사자가 되었다. 사자는 자신이 배고플 때, 자신의 의지로 사냥을 한다. 사자의 정신은 자유정신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정신이다.

“위대한 해방의 역사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해방은 동시에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병이기도 하다.

스스로 정의하고 스스로 가치를 정립하려는 힘과 의지가 만드는 이 최초의 폭발,
자유의지를 향한 의지”⁴⁾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관습과 규범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유의지를 가질 줄 알아야 하고 사자처럼 포효할 줄 알아야 한다. 자유의지를 터득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존의 관습, 관계, 규범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부정의 힘이기도 하다. 자신의 나쁜 모습이나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자유의지를 가질 때 인간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자신에게 강제로 주어진 짐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길을 갈 거라고 포효하는 우리는 삶을 실험적으로 살 수 있고, 위험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용기를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힘은 자유로운 정신으로 하여금 시험에 삶을 걸고 모험에 몸을 내맡겨도 된다는 위험스런 특권을 부여한다.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이다.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를 거쳤다. 순종할 줄도 알고, 나에게 무엇이 무거운 짐인지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낙타의 단계와 사자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니체는 이것을 ‘생성의 무죄’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인식을 통해 변화한다.

4) 프리드리히 니체(2001)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 (니체전집7), 김미기(역), 책세상. p.13

“어린이는 순진무구하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욕구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⁵⁾

어린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아이들은 삶과 놀이에 경계를 두지 않고 언제나 하는 모든 일을 즐기며, 과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에 집중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새로이 창조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어린이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 낙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자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했다면 그 두 단계를 극복하면 비로소 내면의 어린이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라면서 “I am” 이라고 한다.

본 연구자는 니체가 말하는 인간정신변화의 3단계를 통해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지만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니체의 정신을 인간의 삶에 대입하여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벗어내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드리기 위한 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단계의 전체적인 줄거리보다는 3가지의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 즉 노력하고 변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고, 니체가 말하고 있는 3단계를 통해 삶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연구하였다.

5) 프리드리히 니체(2000)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전집13), 정동호(역), 책세상. p.41

Ⅲ. 연구 작품 개요

3.1 안무의도 및 작품의 형식

3.1.1 안무의도

이 작품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만들려는 시도이며 연구이다. 본 안무가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의3단계]를 모티브로 초인이 되려는 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인간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다. 니체는 ‘인식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인식이다.’ 라고 말했다.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본래의 자신이 되려면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를 모두 거쳐 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가지의 상징을 통해 서술되고 있는 변신의 과정 중에 어느 하나의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에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인간정신변화의3단계]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를 토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인내하고, 본인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모험할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 자신 스스로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본인을 바라 볼 수 있는 초인의 모습을 춤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작품화 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작품을 완성하고자 한다.

3.1.2 작품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는 작품의 구조를 3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3개의 서술된 상징(‘낙타’, ‘사자’, ‘어린이’)을 움직임 언어로 창작하여 단계별로 변화되는 인간의 모습을 서술형식의 작품으로 구성 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낙타의 이미지를 소품과 제한된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2장에서는 자유를 향해 포효하는 사자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 등 에서부터 시작된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속도감 있는 움직임을 통해 사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음악과 의상에 변화를 주어 더욱 극대화 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모든 것을 받아드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제 3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타인으로 인하여 무대가 변하고 나의 짐 혹은 나의 허물과도 같은 것들이 치워짐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총 세 장면을 통해 점차적이며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인내와 순종, 자유를 향한 의지와 그 힘에 의한 폭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통해 초인이 되고자 하는 한 인간의 감정과 표현을 중점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표 3-1]로 정리하였다.

[표 3-1] 연구 작품 I AM 작품형식 및 구조

장	주제	장면 설명
1장 인내와 순종	낙타	낙타는 가장 무거운 것(삶의 무게)을 견뎌내려는 태도이며 중력의 정신이다. (질문-무엇이 가장 무거운 것인가?) *키워드- 무거움.
		인간의 삶은 자신이 선택해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태어난 것을 받아드리고 살아가야만 한다. 니체가 말한 낙타처럼 자신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숙명이다.
		낙타의 이미지를 몸으로 표현하고, 짓눌린 무게감을 이미지화 시켜 움직임으로 표현.
장	주제	장면 설명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사자	사자는 ‘자유정신’을 상징한다. ‘자유정신’이란 기존의 관습, 규범,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정의 힘 이다. (질문-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키워드- 자유로움, 새로운 가치, 극복
		자유意志가 생겼으며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도전해 나가는 첫 번째 폭발. 자유를 향한 의지와 힘에 의한 시험에 도전하고 모험에 몸을 내 맡기는 특권.
		#1과 반대되는 움직임 질감으로 극적으로 반전효과를 기대하며 사자의 이미지를 등에서부터 움직임을 점점 확장시켜 더욱 자유롭게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움직임.
장	주제	장면 설명
3장 나를 바라보다	어린이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 이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의 유희로 바라보는 초월적 인간이다. *키워드- 받아드림, 초월, 해탈, 평온
		욕구와 욕심들에서 벗어나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닌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단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드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표현.

3.2 작품의 구성요소

3.2.1 소품

“무대소품은 공간상의 모양, 크기, 부피, 형태 그리고 짜임새를 동작에서 이미 보이는 것을 강화하거나 대조함으로써 변화한다. 소품은 종종 무용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하다. 아마도 가장 자주 동작 선을 넓혀 주기도하고 동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소품과 세트는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 극적인 느낌을 가지는데 사용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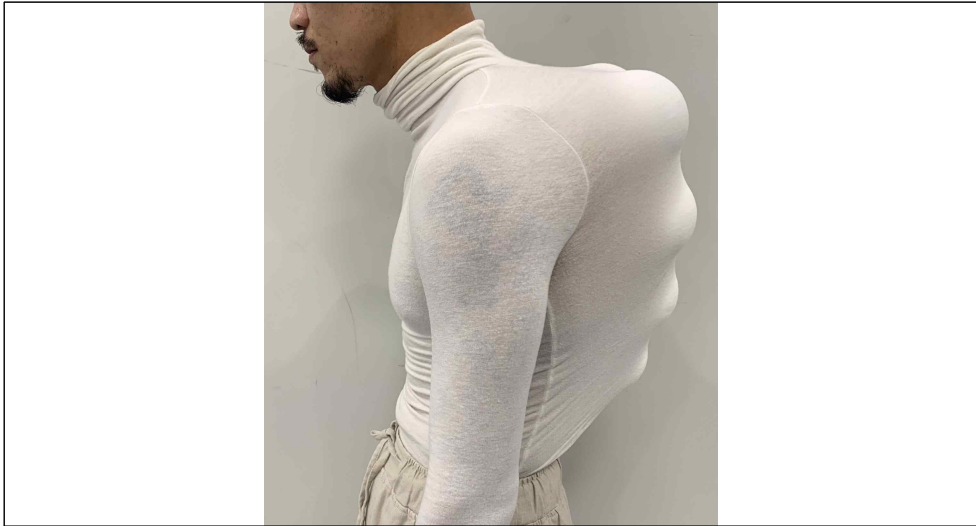
무대 소품은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내용 구성을 관객으로 하여금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써 본 작품에 사용된 흰 색 스티로폼 공은 상징적으로 인간이 짊어진 짐을 시각화 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였고, 무대 전체 바닥에 깔아 두고 다양한 크기의 공들을 무대에 사용하였다. 수많은 하얀 공들이 무대에 펼쳐져 있으며, 무용수의 등 안에도 들어있다. 무용수는 그것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도전하는 모습을 작품의 가장 주된 하이라이트 이미지라고 생각하여 사용하였다.

〈그림3-1〉은 1장 작품 시작부터 1장 마지막까지 무용수의 의상 안에 넣어 낙타의 등 이미지를 부각 시켰다. 짊어져야만 했던 나의 짐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그림3-2〉는 작품 전개에 있어서 등에 있는 소품들을 무용수 스스로가 벗어나려는 행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바닥에 깔린 수많은 공들은 3장에서 타인에 의해 치워지게 되는데 그 장면은 짐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는 시도 후 낙타의 단계 와 사자의 단계를 거쳐 초인이 된 나에겐 ‘아무 의미 없음’ 을 나타낸다. 타인에 의해 나의 짐 혹은 나의 허물들이 치워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받아들이고 태연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6) g,체니/자넷스트레이드(1994) 『무용창작의 기초적 접근』, 김귀자/백현순(역), 현대미학사, p.123

〈그림3-1〉 연구 작품 I AM 소품의상 활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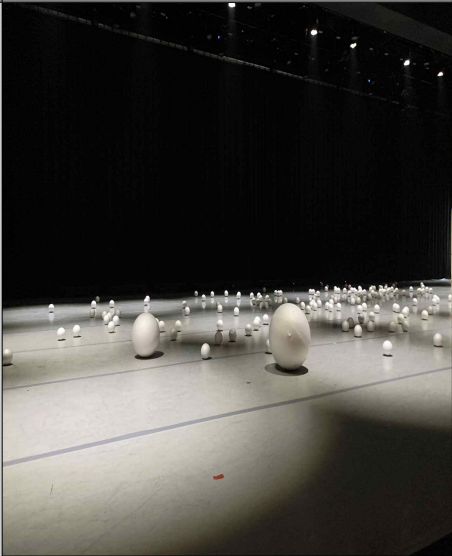


〈그림3-2〉 연구 작품 I AM 소품의상 활용 2



본 작품의 소품을 [표3-2]로 정리하였다. 소품을 작품전체의 무대 세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하얀 스티로폼 공이 작품구성의 요소로서 작품에서 중요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표3-2] 연구 작품 I AM 무대 소품

무대 소품	이미지	의미, 목표, 역할
흰 스티로폼 공		무대세트로서의 소품
		무게. 짊어진 짐의 상징으로서의 소품

3.2.2 의상

“의상은 동작의 내부구조로부터 시작한다. 의상은 무용수가 리허설에서 공연까지 옮겨가는 동작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의상은 안무가의 의도를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고안된 동작을 보강하고, 명확히 해주며,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⁷⁾

의상은 본 연구 작품의 시작에서 소품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써 사용되어진다. 2장과 3장에서 의상을 탈의 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짊어진 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위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모든 의상을 벗은 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상의는 잘 늘어나는 소재로 상의 안에 소품들을 넣어 등에 짊어진 짐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또한 사이즈를 타이트하게 제작하여 소품들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하의는 부드러운 상의에 반대되는 거칠면서도 직선적으로 떨어지는 마 재질의 의상을 선택하고 의상의 색상은 상하의 모두 아이보리 색으로 통일하여 의상 색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차단하고 무용수의 몸의 형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작품의 의상은 다음의 <그림3-3> 이다.



7) 조승미,오윤자,박경숙(1995), 『무용제작법』 금광, p 67.

3.2.3 음악

본 연구 작품에서 인간정신변화 3단계는 인간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며 초월적 의미를 지닌 사상으로 단순히 낙타, 사자,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상징들으로써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본 안무가는 멜로디 라인이 강한 설명적 음악보다는 음악 자체의 분위기 그리고 공간감을 표현 할 수 있는 Ambient Music을 사용하였다. 솔로 작품의 경우 무대공간을 단조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에서 Ambient Music을 사용하므로 공간감을 음악적으로 채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한다.

우광혁(2000) 무용 음악론 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무용가는 음악을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이처럼 음악을 사용 할 때 안무가는 소리로서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음악 속에 담겨진 음악적 인자들을 사용한다. 안무가 이루어지기 전에 처음 음악을 들을 때 안무가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길이를 듣고, 음악의 소노리티를 들으며 그 음악에서 활용되는 리듬과 음악의 형식 그리고 그 음악이 자아내는 기본적인 정서를 듣는다. 그러한 인자들이 자신 그리고 있는 안무적 구상과 일치 할 때 무용가는 그 음악은 사용한다.”⁸⁾

총 3개의 음악을 사용하였으며, 1장의 작곡가 February Four의 Moonlight Shadows와 2장의 작곡가 Raime과 Godspeed you Black emperor의 The Last Foundary와 motherfucker=redeemer(cont.)를 사용하였으며 연속적으로 3장까지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표 3-3]에 작품에 사용된 음악을 정리하였다.

장	사용 음악 및 작곡가
1	Moonlight Shadows, February Four.
2	The Last Foundary. Raime, motherfucker=redeemer(cont.), Godspeed you Black emperor.
3	Motherfucker=redeemer(cont.), Godspeed you Black emperor.

8) 우광혁(2000) 『무용과 음악이 만날 때』, 도서출판 예술. p.16.

1장에서 February Four 의 Moonlight Shadows 라는 곡을 사용한다. 무게감 있는 Ambient Music으로 여러 가지 사운드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음악이다. 음악의 사용으로 무용수의 움직임이 더욱 무게감 있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2장에서 사용되어진 음악은 Rime 의 The Last Foundary 와 Godspeed you Black emperor 의 motherfucker=redeemer(cont.) 라는 두 곡을 사용하였다. Rime 의 The Last Foundary 는 2장 초반 무용수가 등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때 까지 사용된 음악으로 묵직한 사운드들이 쌓여있는 음악적 구성이며, 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무용수의 움직임이 더욱 고되 보이도록 사용하였고 묵직한 사운드들의 소리로 인하여 공간감 또한 제한하여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움직임을 극대화 하고자 사용하였다. Godspeed you Black emperor 의 motherfucker=redeemer(cont.)은 무용수가 등에서부터 벗어나려는 행위를 할 때부터 작게 시작되어 2장에서 첫 번째 음악과 중첩되어 사운드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자유를 향한 의지를 표현하는 2장 중반부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과 함께 음악을 사용하였다. 또 이 음악은 점차적으로 템포가 빨라지는 음악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사용되어졌다. 점점 많아지는 사운드와 점점 빨라지는 템포의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을 가장 긴장감 있게 표현하였다.

3.2.4 조명

무대 조명은 무대예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작품의 분위기와 의미를 극대화하는 장치이다. 본 작품에서 의상, 소품과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관객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주며, 공간과 에너지, 움직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하였다.

“조명은 작업의 분위기를 외면으로 들어내고, 공간을 정의하고, 환경을 만들고 선택된 요소를 강조하고, 관계들을 명확히 하고, 무대와 공연자의 삼차원적인 면을 고양시키고, 초점감각을 주면서 보는 사람의 관심을 끈다.

조명의 강도는 감정과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 밝음은 원기 왕성함을, 어둠은 의기소침함을 연상시킨다. 조명의 방향도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수직광선은 향상심을, 수평광선은 현실적인 느낌을 준다.”⁹⁾

본 연구자는 작품에 있어서 조명의 사용을 단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빛의 방향과 빛 조도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관객으로 하여금 움직이는 무용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다음의 [표 3-4]를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빛의 방향	시각적 선명도	극적 효과	분위기
후 광 (back light)	사실적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는데 유용	무거운 분위기
상측광 (high side light)	가시성이 떨어진다.	극적인 효과에 매우 효과적	질감을 잘 보여준다.
옆광 (side light)	상측광과 비슷하나 사실성이 떨어진다.	매우 효과적	질감을 잘 보여준다.
윗광 (top light)	부적합하며 그림자가 심하게 생긴다.	배우를 비출 때 매우 강한 효과	공격적

9)조승미,오율자,박경숙(1995), 『무용제작법』 금광, p 92.

조명 큐 변화에 따른 무대에서 빛의 각도 변화는 시간의 경과를 알려 뿐 만 아니라, 작품의 전개를 설명하고 각 장의 분위기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의 표 [표3-5]는 이번 연구 작품의 조명 큐 시트 이다.

[표3-5] 연구 작품 I AM 조명 큐시트

Q	동선/장면	큐 타임	시간	조명 변화
1	조명, 음악 동시 큐	in 10s	00:00	무대 우측 상측광 1번 in
2	1번 조명 벗어 날 때	in 10s	00:56	무대 우측 상측광 2번 in
3	2번 조명 벗어 날 때	in 10s	01:56	무대 우측 상측광 3번 in
4	3번 조명 벗어 날 때	in 10s	02:53	무대 우측 상측광 4번 in
5	무대 상수 다운 스테이지 무용수 스면	out 20s	04:17	1,2,3,4번 조명 out
6	무용수 서서 움직임 시작 (5번큐와 동시큐)	in 10s	04:17	무대 중앙 전체조명 in
7	6번큐 조도 변화 up	in 40s	05:30	무대 전체 조도 상승
8	무용수 하수 다운 스테이지 쪼그려 앉으면	in 30s	08:03	무대 전체 조도 다운
9	무용수 쪼구려걷기 무대중앙으로 향할 때	in 40s	08:48	무대 후면 센터 top조명 in
10	무용수 탑조명 상의탈의 하면 (음악전환)	in 20s	09:00	6번 큐 조명 out
11	무용수 뒷구르기 해서 움직임 시작	cut	11:00	무대 중앙 화이트조명 in
12	무용수 상수 쪽으로 턴 돌 때	in 10s	11:32	무대 전체 화이트 조명 in
13	두 번째 음악 5분 지점	in 20s	13:10	전체조명 조도 up 및 사이드 조명 보강
14	무용수 하의 탈의	in 5s	14:00	전체조명 색 전환
15	4명 타인 등장할 때 15초 마다	cut out	14:30	중앙으로부터 바깥라인 조명부터 out
16	하의탈의한 무용수 앞으로 걸어 나올 때		14:58	센터 탑 조명 in , 포커스 zoom out
17	무용수 뒤로 들어갈 때	포커스 in	15:00	센터 탑 조명 포커스 zoom in
18	무용수 바닥에 앉으면	in 20s	15:15	탑 조명 조도 다운
19	암전	cut	16:00	

IV. 연구 작품 분석

본 연구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 3단계를 통해 한 인간이 초인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작품의 1장은 ‘인내와 순종’을 주제로 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 짊어지게 되는 짐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2장에서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주제로 새로운 시도를 하며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몸을 던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3장에서는 ‘나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이전의 두 가지의 상징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구조로 점진적으로 인간의 변화과정이 잘 나타났는지 컨템포러리 창작 작품으로서 안무 의도와 움직임, 그리고 작품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잘 표현되었는지 분석 연구하였다.

4.1 1장: 인내와 순종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낙타의 단계를 바탕으로 장면을 구성하였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요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 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다음의 인식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본 안무가는 1장에서 사막에 사는 낙타를 이미지화하고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는 중력의 정신,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것을 견뎌내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 무게 또한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춤의 언어로 만들고자 하였다.

무겁고 조용한 사운드와 낮은 조도의 노란 조명으로 사막의 고요함과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첫 장면에서 무용수가 등에 짐을 지고 있

는 모습을 1장의 첫 장면으로 보여줌으로 낙타의 이미지를 실체화하면서 무용수 등에 소품이 들어있는 것을 관객들에게 인지시켜 1장의 이해를 돕는다.

1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스로 의상의 상의를 탈의하며 등에 있는 짐들을 벗어내는 행위는 다음 단계인 사자의 단계 “자유를 향한 의지”로 가기 위한 극의 연결성을 가지는 장면으로 연출하였다.

“인간은 몸이 견뎌 낼 수 있는 극단까지 자기 자신을 몰고 갈 때 비로소 인간 자신의 몸을 느낀다. 그렇지만 어떻게 몸이 극단의 고통과 수난을 견뎌 낼 수 있을까? 바로 사유를 통해서 이다. 몸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생각의 힘은 커진다.

모든 것을 철저히 뿌리까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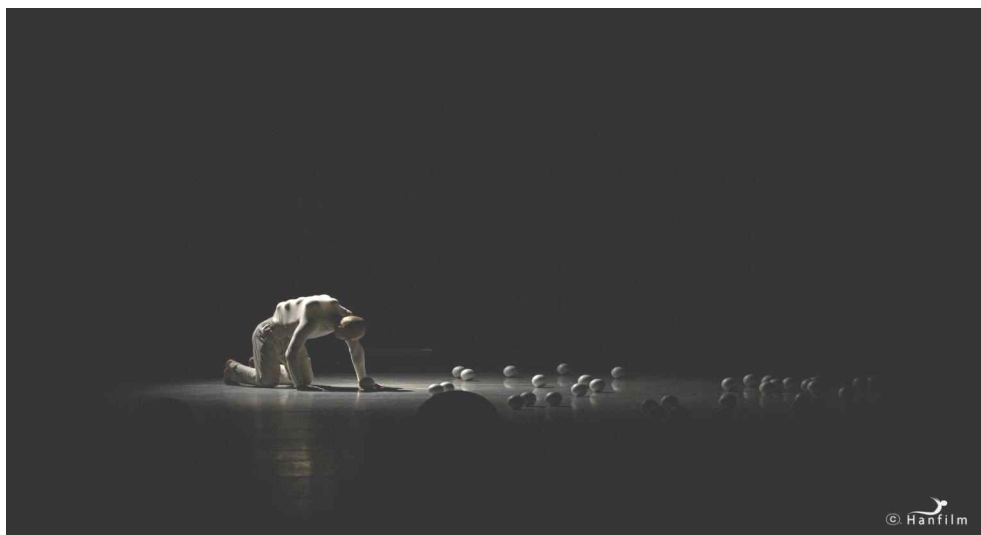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모습을 소품사용을 통해 시각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무용수의 모습과 무용수의 움직임 through 관객들이 사유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상상 할 수 있도록 장면구성을 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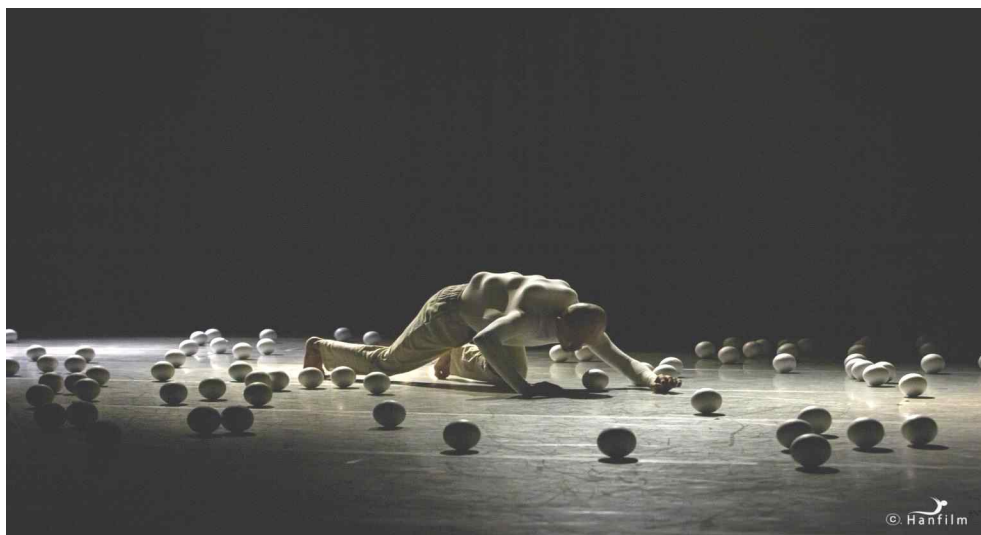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4-1>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의 첫 장면에서 낙타의 모습을 시각화하였고, 인간의 몸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소품을 활용하여 이미지화시키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니체가 말한 낙타를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유하는 인간, 고민하는 인간을 표현하였다. <그림4-2>에서 무게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가장 무거운 것을 견뎌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10) 이진우(2018), 『니체』 (쥬북이십일 아라테, p 33.

〈그림4-1〉 1장 ‘인내와 순종’ 낙타의 형상을 이미지화 한 모습



〈그림4-2〉 1장 ‘인내와 순종’ 묵묵히 걸어가다



〈그림4-3〉에서 볼 수 있듯이 무용수가 하수 업스테이지 영역에서 사유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무엇이 무거운 것인지,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항상 스스로

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니체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림4-4〉의 장면에서는 스스로 그 무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 인식이 변화했음을 암시하고 사자의 단계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림4-3〉 1장 ‘인내와 순종’ 사유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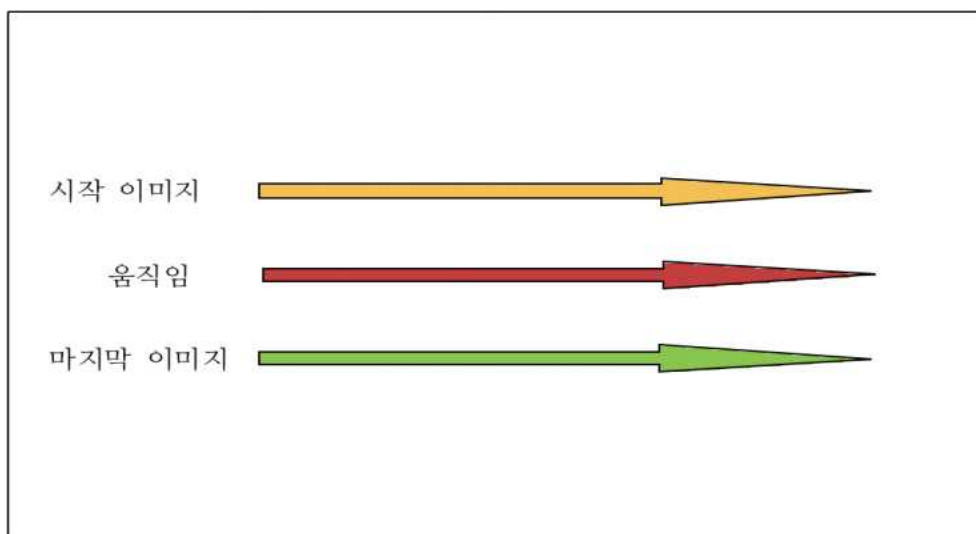


〈그림4-4〉 1장 ‘인내와 순종’ 다음단계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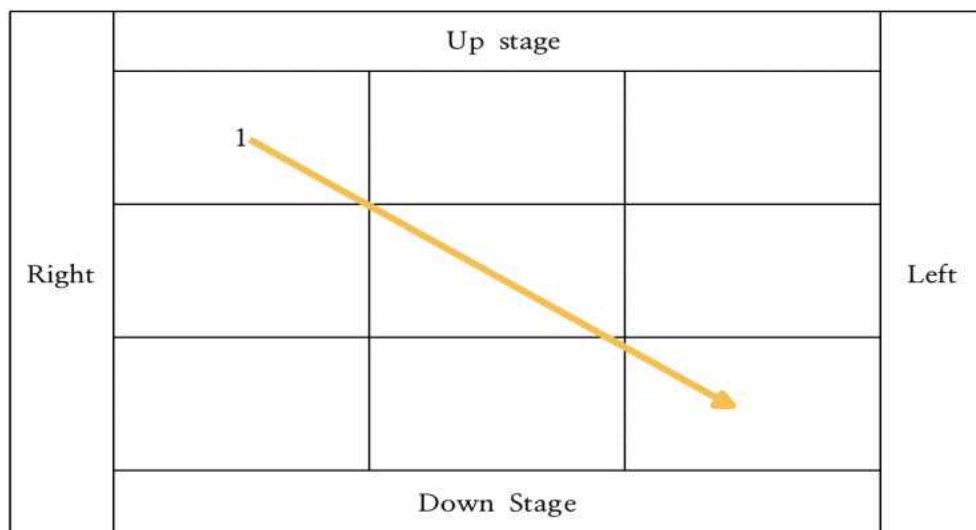


아래 <그림4-5>는 무용수의 동선 방향을 표시 전개 과정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도록 색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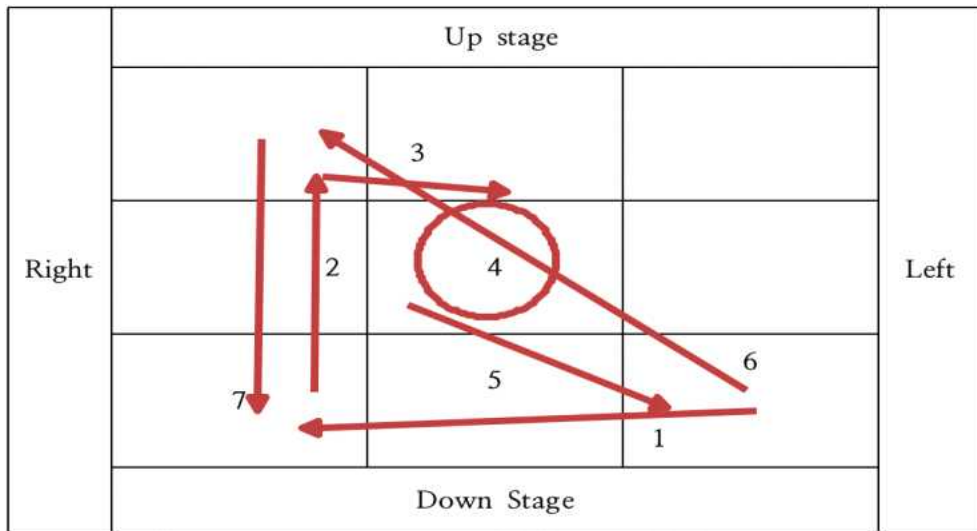
<그림4-5> 작품 움직임 동선 방향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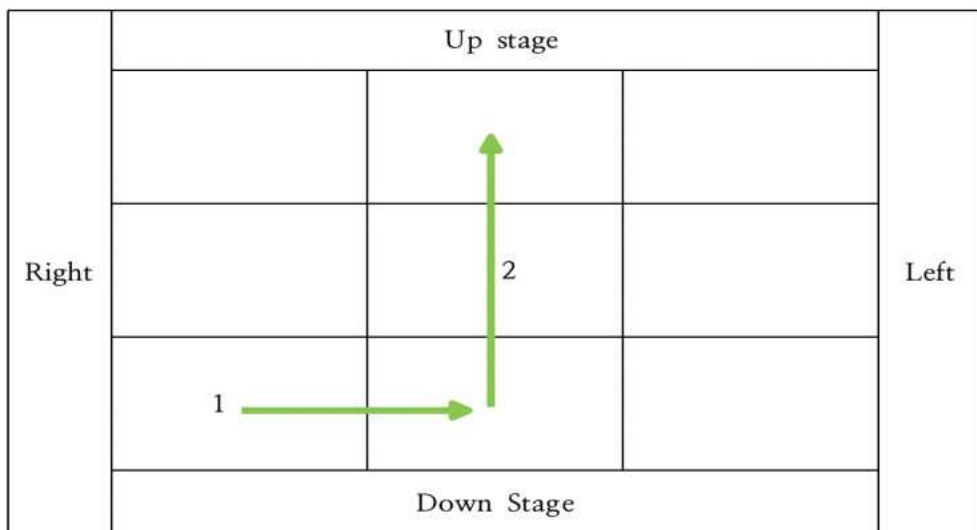
<그림4-6> 1장 ‘인내와 순종’ 시작 이미지 동선



〈그림4-7〉 1장 ‘인내와 순종’ 움직임 동선



〈그림4-8〉 1장 ‘인내와 순종’ 엔딩 이미지 동선



4.1.3 음악

1장에서의 음악사용은 무게감 있는 Ambient 음악으로 여러 가지 사운드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음악이다. 음악이 주는 공간감과 분위기를 통해 사막에서의 낙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연출효과와 짙어진 짐의 무게감을 표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반복적인 사운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또 성찰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February Four 의 Moonlight Shadows 라는 곡을 사용하였다.

4.1.4 무대 장치 및 조명

1장에서의 조명은 전체적으로 조명의 조도를 낮게 하여 사용하였으며, 노란색 조명을 사용한 이유는 사막에서 짐을 싣고 가는 낙타를 연상하며 사용하였다. 첫 조명으로 <그림4-9> 후면 우측의 상측광을 사용하여 상수 다운스테이지로 향하는 길의 무게감을 더욱 무겁게 표현 될 수 있도록 낮은 조도의 조명으로 분위기를 집중 시켜 연출하였다. 또 무용수가 상수 다운스테이지로 이동 할 때 마다 조명을 하나씩 추가하여 인생을 살아내고 있음을 표현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무용수가 이동하며 움직이는 모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 하였다. 이후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움직임으로 작품을 전개할 때 <그림 4-10> 같은 색상의 조명을 무대 중앙부로 사용하여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조명의 포커스는 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하게 하여 조명 과 무용수의 형상을 통해 관객에게 낙타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효과를 연출 하였다.

〈그림4-9〉 1장 ‘인내와 순종’ 무대후면 우측 상측광 조명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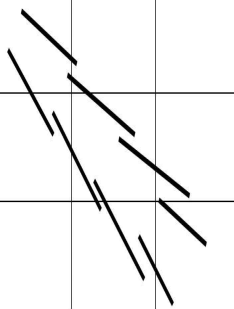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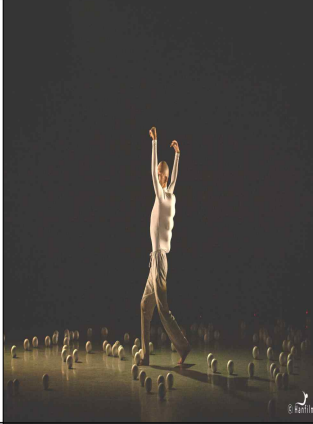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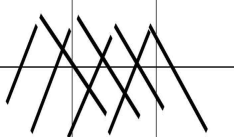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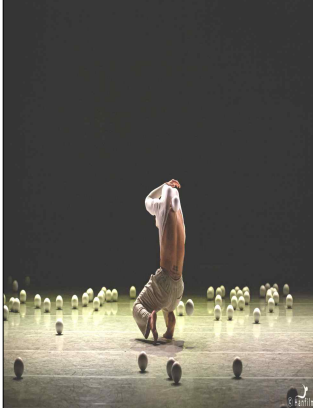


〈그림4-10〉 1장 ‘인내와 순종’ 움직임 조명



[표4-1] 1장 ‘인내와 순종’ 세부분석

조명 방향 : 

조명			이미지	세부분석
Right	Up stage			상 측광을 사용하여 무용수의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4개의 조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걸어가는 길을 표현함.
				
	Down Stage			
	Left			
Right	Up stage			후 상광 조명으로 무대 중앙 부분으로 같은 색상을 조명을 사용하여 무용수의 움직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Down Stage			
	Left			
Right	Up stage			무용수가 상의를 탈의하는 시점부터 조명을 무대 중앙에서 조명의 구역을 좁혀 다음단계로의 전환을 극적으로 표현함.
				
	Down Stage			
	Left			

4.2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4.2.1 내용 및 안무의도

프리드리히니체의 인간정신변화의3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사자의 단계를 2장 “자유를 향한 의지”로 구성 하였다. 낙타의 단계를 지나 사자의 단계로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가치는 무엇인가? 나를 둘러싼 진리, 도덕, 기존의 관습 등 도덕적 명령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그것들에서 벗어나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자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제도, 관습, 규범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지를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사자처럼 포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안무가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을 시작으로 속도감이 점점 빨라지는 사운드를 함께 사용하고, 안무의 움직임 또한 힘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빠르고 더 강하게 사용하여 사자의 포효를 표현하려 한다. 벗어나려는 무용수의 등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대 중앙 다운 스테이지 탑 조명으로 시작하여 무대 전체를 화이트조명으로 점점 밝아지도록 사용하여 연출하고자 한다. 무용수의 움직임이 쌓일수록 스스로에게 시험하며 명령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러면서 기존의 것들에서 탈피하고자 시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장면을 구성하고자 한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4-11〉 장면은 무용수 등에 짊어진 짐들을 벗어내고 의상상의의를 탈의하는 장면으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변화의3단계 중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로의 변화됨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짐에서부터 탈피하려는 모습을 통해 다음의 단계로 변화되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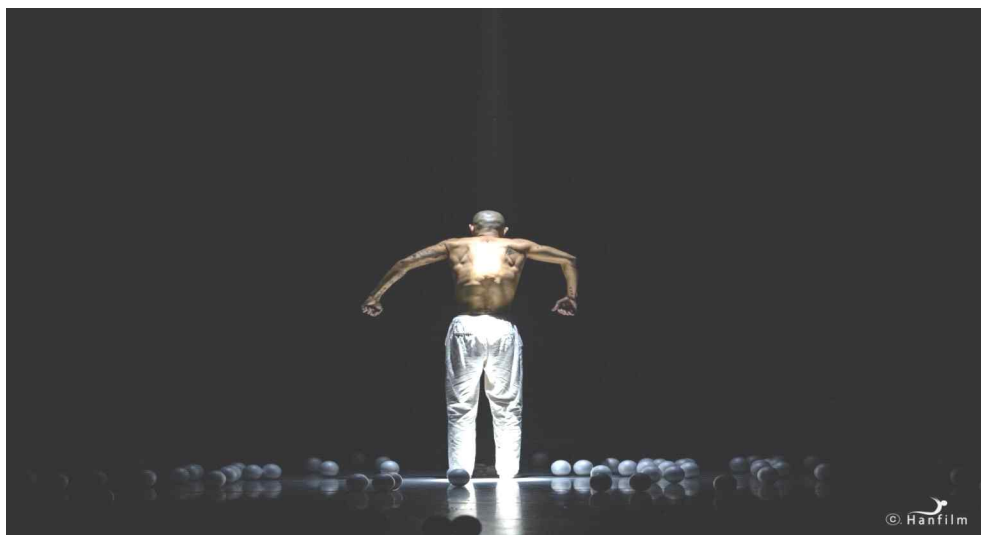
〈그림4-12〉은 짊어진 짐에서부터 벗어나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작은 근육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여 무용수의 몸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기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등의 근육을 사용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상체근육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자의 동물적이며 감각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바닥의 소품들을 발로 차고 몸으로 치우며 무대 동선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짊어졌던 짐들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바닥의 소품에 개의치 않고 움직이는 무용수를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표현 하였다.

〈그림4-11〉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다음단계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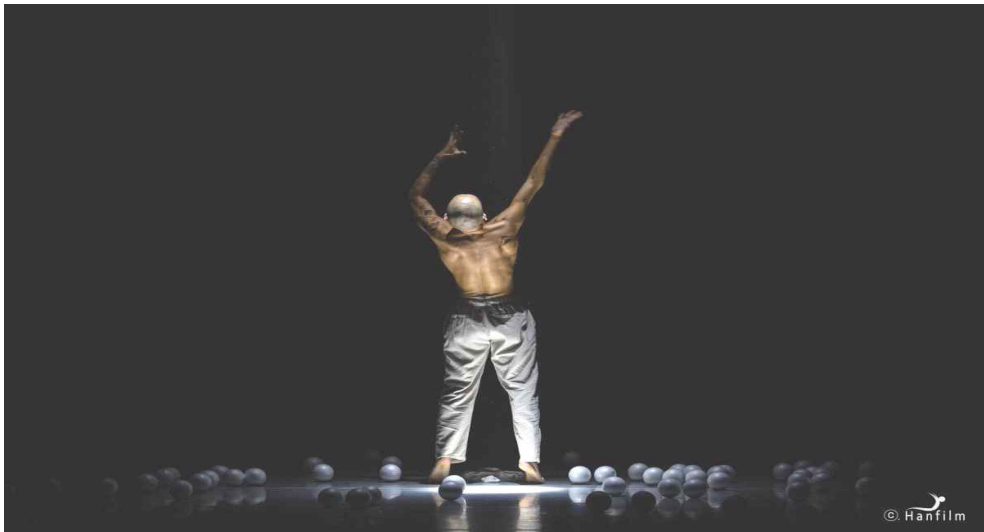


〈그림4-12〉 짊어진 짐으로부터 벗어나 등의 움직임



〈그림4-13〉 〈그림4-14〉는 등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 몸의 전체로 커져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모습이다.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어 커진 무용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만큼 초인이 되길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시작된 움직임들이 쌓여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때 음악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운드가 추가되고 메탈사운드들이 추가되면서 동시에 템포 또한 빨라지는 음악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작품의 최고조로 연출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림4-13〉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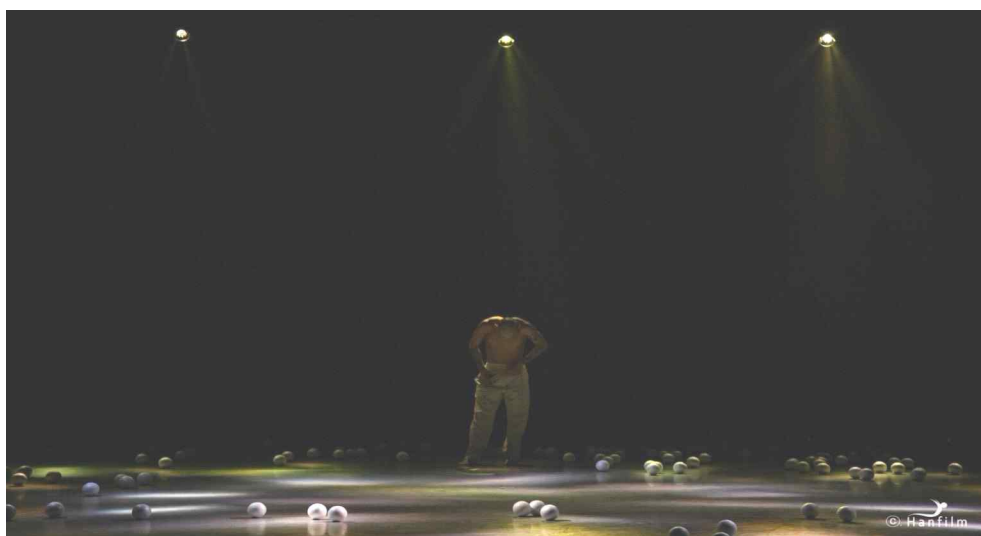


〈그림4-14〉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움직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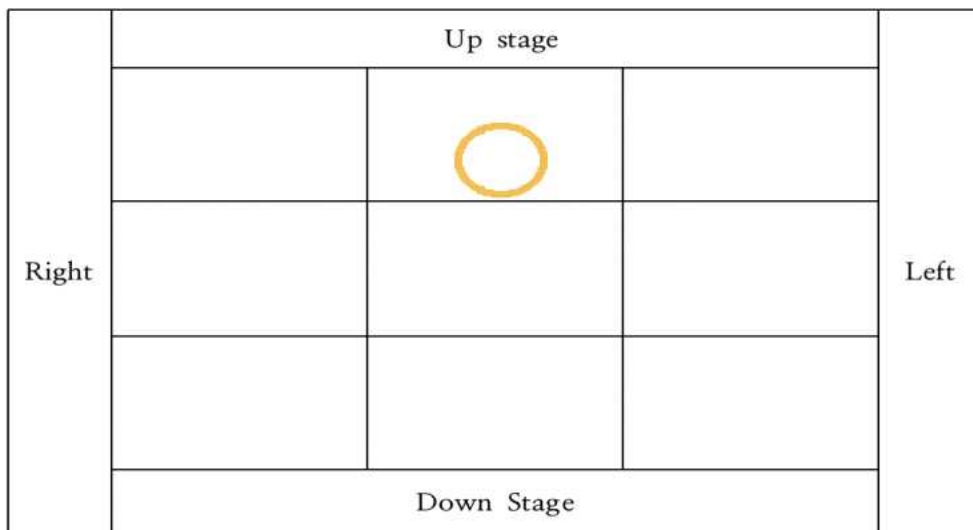


2장의 마지막 장면으로 〈그림4-15〉 무용수가 의상 하의까지 탈의하며 사자의 단계에서 또 한 번 변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인간정신 변화 3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어린아이의 단계로 변화됨을 의상탈의를 통해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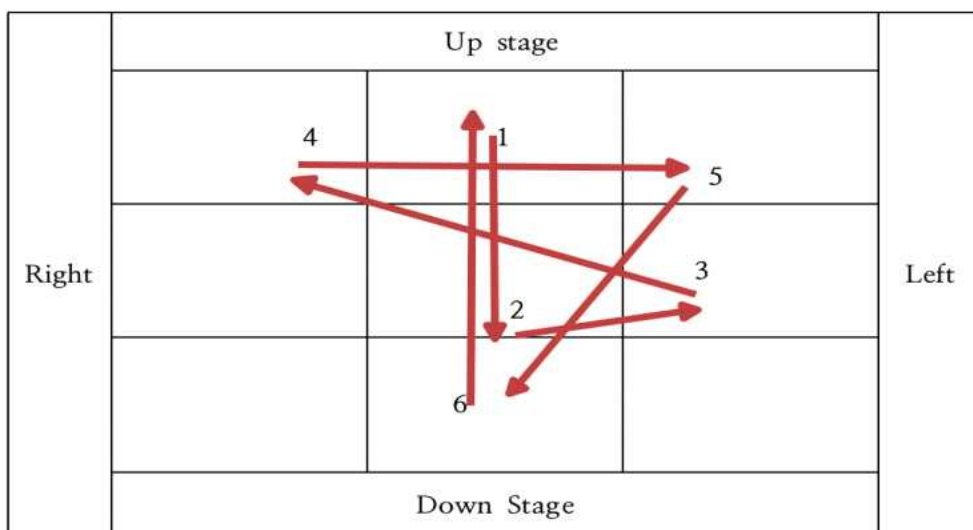
〈그림4-15〉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하의 탈의



〈그림4-16〉 사자의 단계 첫 번째 장면으로 짙어진 짐으로부터 벗어나 등에서 시작되는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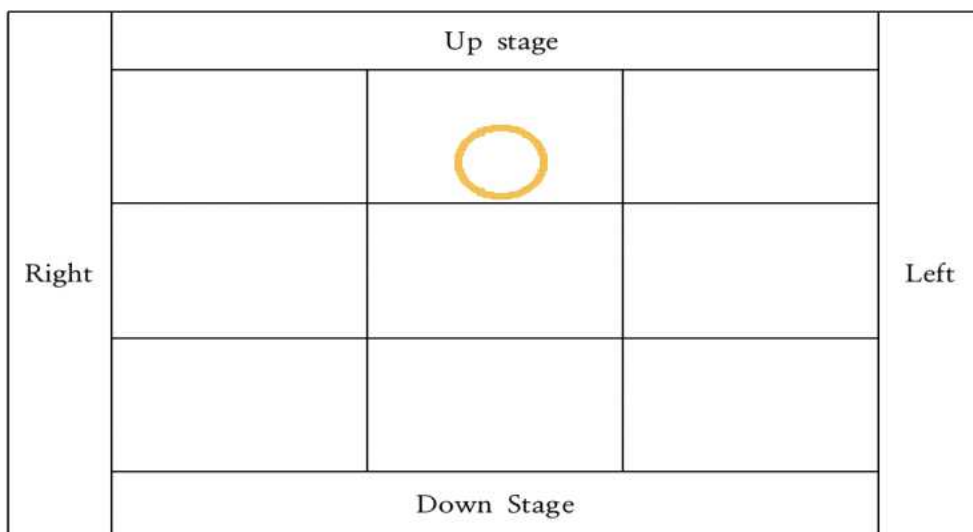


〈그림4-17〉 사자의 포효처럼 자유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점진적 움직임의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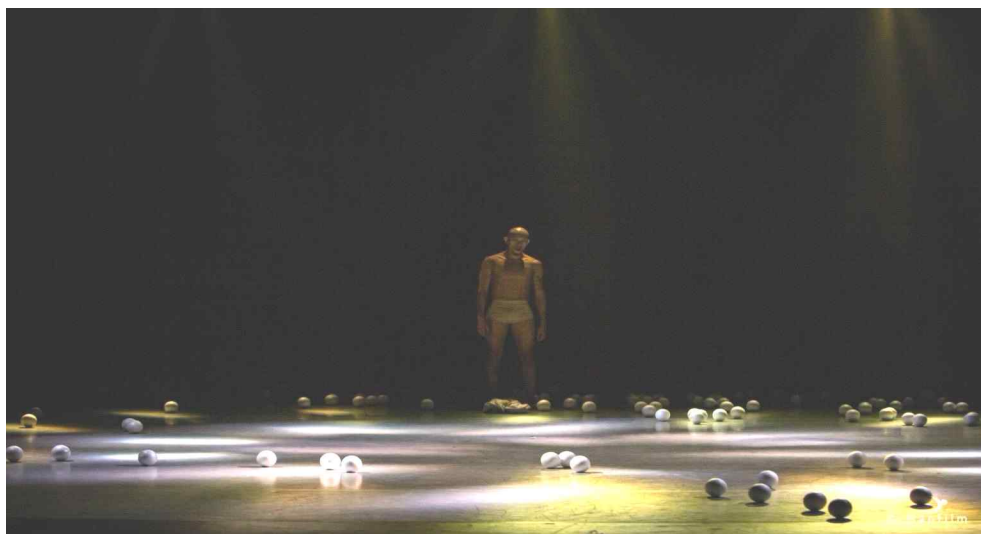


〈그림4-18〉,〈그림4-19〉는 2장 ‘자유를 향한 의지’의 마지막 장면으로 무용수가 의상 하의까지 탈의하는 무대 포인트의 동선그림과 사진이다. 이로써 무대 위의 무용수는 나체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은 다음 단계로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임과 동시에 3장을 이어주는 장면이다.

〈그림4-18〉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마지막장면 동선



〈그림4-19〉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마지막 장면



4.2.3 음악

2장에서 사용되어진 음악은 Rime 의 The Last Foundary 와 Godspeed you Black emperor 의 motherfucker=redeemer(cont.) 라는 두 곡을 사용하였다. Rime 의 The Last Foundary 는 2장 초반 무용수가 등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때 까지 사용된 음악으로 묵직한 사운드들이 쌓여있는 음악을 사용하여 짐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무용수의 움직임이 더욱 고조 될 수 있도록 사용하였고 묵직한 사운드들의 소리로 인하여 공간감 또한 제한하여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움직임을 극대화 하고자 사용하였다. Godspeed you Black emperor 의 motherfucker=redeemer(cont.) 는 메탈사운드들이 점진적으로 쌓이고 템포 또한 연속적으로 빨라지는 음악으로 무용수가 등에서부터 벗어나려는 행위를 할 때부터 작게 첫 번째 음악과 중첩되어 사운드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자유를 향한 의지를 표현하는 속도감 있는 움직임과 함께 음악을 사용하였다. 점점 많아지는 사운드와 점점 빨라지는 템포의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긴장감 있게 표현하였다.

4.2.4 무대 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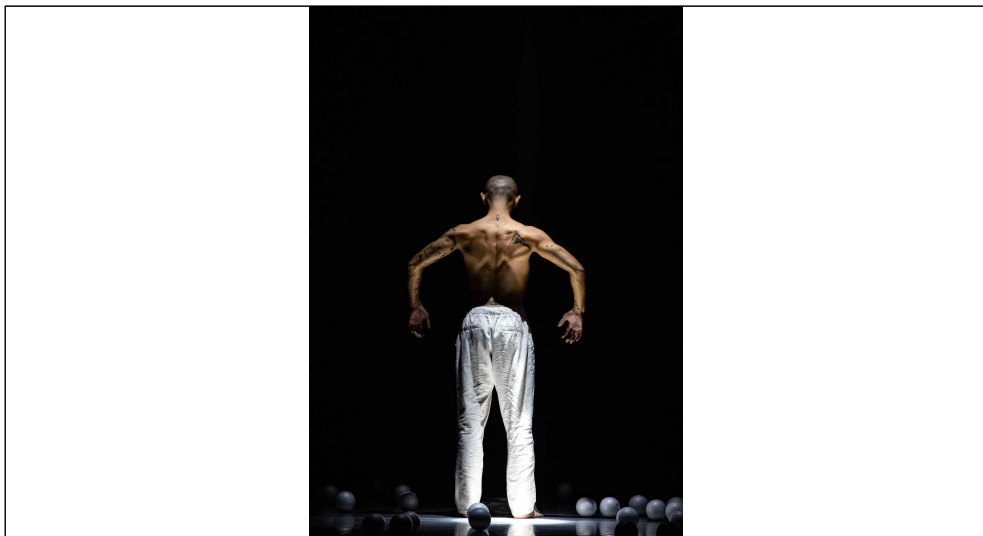
2장에서의 조명은 무용수의 움직임 표현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림4-20>에서 볼 수 있듯이 무용수가 움직이면서 보이는 상체의 근육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조명을 사용하였고, 선명하게 명암을 주어 근육들이 더욱 잘 보이게 연출하였다.

2장 시작에는 무대 다운스테이지 탑 조명 <그림4-21>을 사용하여 등의 움직임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출하였다. 탑 조명을 통해 몸의 명암을 확실히 하여 등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까지 관객에게 인지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이후에 작품이 전개함에 따라 무대중앙으로 무용수가 동선이동을 하면서부터는 <그림 4-22> 전체적으로 무대 중앙부를 비출 수 있도록 후상광 조명을 사용하였고, 무대 중앙부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무대 전체공간으로 확장되는 형식의 조명의 사용으로 무용수의 움직임들이 작품전개에 따라 무대 사용공간을 넓힐 때 마다 조명 또한 넓어지도록 구성하고, 조명의 조도 또한 1장에 대비하여 밝게 설정하였다. 더 밝아진 조도로 2장을 전체적으로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이미지화하는 연출을 하였다.

<그림4-20>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전체 화이트 조명



〈그림4-21〉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탑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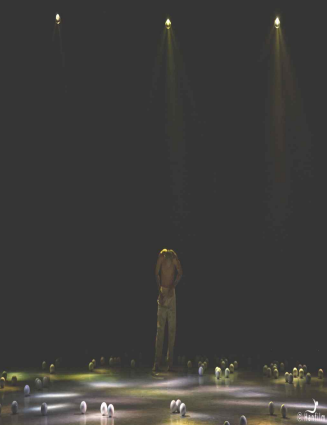


〈그림4-22〉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무대 전체 후상광 조명



[표4-2] 2장 ‘자유를 향한 의지’ 세부분석

조명방향:

조명		이미지	세부분석
Right	Up stage		탑 조명을 사용하여 등의 미세한 움직임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함.
	Down Stage		
Right	Up stage		탑 조명에서 전체 후상광 조명으로 전환하여 사자의 포효함을 표현하고 사이드조명을 함께 사용하여 움직임의 에너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함.
	Down Stage		
Right	Up stage		무용수가 하의를 벗을 때, 조명의 색상을 전환하여 인식의 단계가 변화되었음을 표현함.
	Down Stage		

4.3 3장: 나를 바라보다

4.3.1 내용 및 안무의도

프리드리히니체의 인간정신변화의3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3장 “나를 바라보다”로 구성 하였다. 1장과 2장에서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내하고 순종할 줄도 알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려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제 작품의 마지막 장으로 초인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이다.”¹¹⁾

인간이 짊어진 짐도, 또 나를 옴아뻤던 제도와 관습 등도 결국엔 인간 자신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본 안무가는 생각하였고, 스스로를 바라 볼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초인일 것이라 생각하며 3장을 구성하였다.

3장에서 의상 하의마저 탈의 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무대 중앙 업스테이지에 무용수가 서있다.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를 거친 후 나의 모든 허물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있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음악의 변화와 함께 무대에 타인들이 등장하여 무대에 놓아진 소품들을 빠르게 치우는데 이것은 타인들에 의해 세상 혹은 환경이 변하여도 ‘나’ 본인은 있는 그대로 존재 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연출하였다.

11) 프리드리히 니체(2000)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전집13), 정동호(역), 책세상. p.41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장에서 연결되어지는 3장의 시작은 무용수가 의상 하의를 탈의하면서 극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림4-23>에서 볼 수 있듯이 무용수가 모든 의상을 벗고 무대의 업 중앙스테이지에 서있다. 이 때 조명 또한 다시 노란 조명으로 전환을 주어 극의 전환을 연출하였다. 3장에서는 움직임 언어로 장면을 구성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무용수의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본다.’ 라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였다. 무용수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상태가 아닌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짐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움직임은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무대 위 무용수의 신체를 더욱 사실적으로 보이길 위하여 장면을 연출하였다. 낙타의 단계와 사자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존재하고 있는 나를 나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무용수의 서 있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이 후<그림4-24>는 무대에 4명의 타인들이 등장하여 무대 위의 소품들을 치우는 장면이다. 무용수는 타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오로지 서 있을 뿐이며, 무대 위 등장한 4명의 타인들의 의미는 세상이나 외적환경이 타인들에 의해 변하더라도 ‘나’ 본인은 있는 그대로 존재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작품의 극적인 최고조는 2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의 최고 절정은 3장이라고 생각하며 작업하였다. 이 전의 두 단계를 거친 후 본연의 나의 모습을 내적 관점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상적인 초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림4-23〉 3장 ‘나를 바라보다’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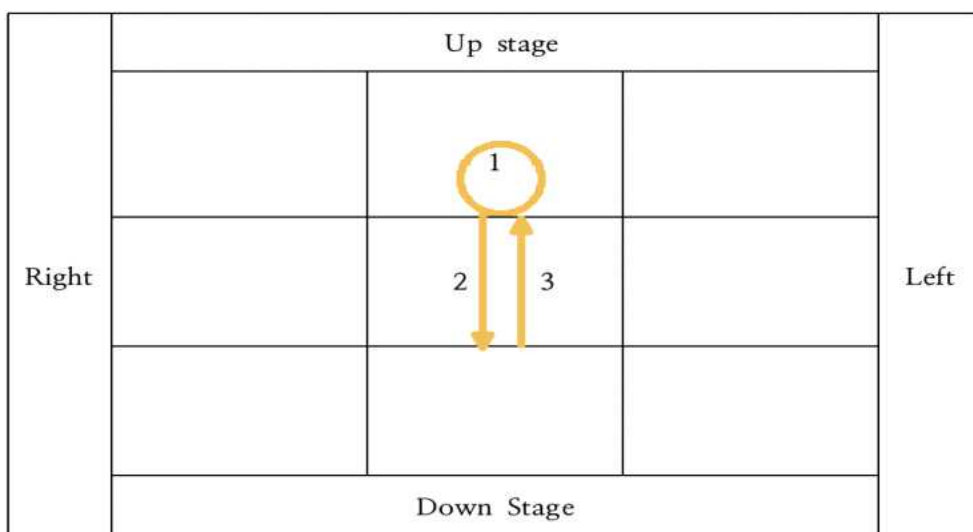


〈그림4-24〉 3장 ‘나를 바라보다’ 타인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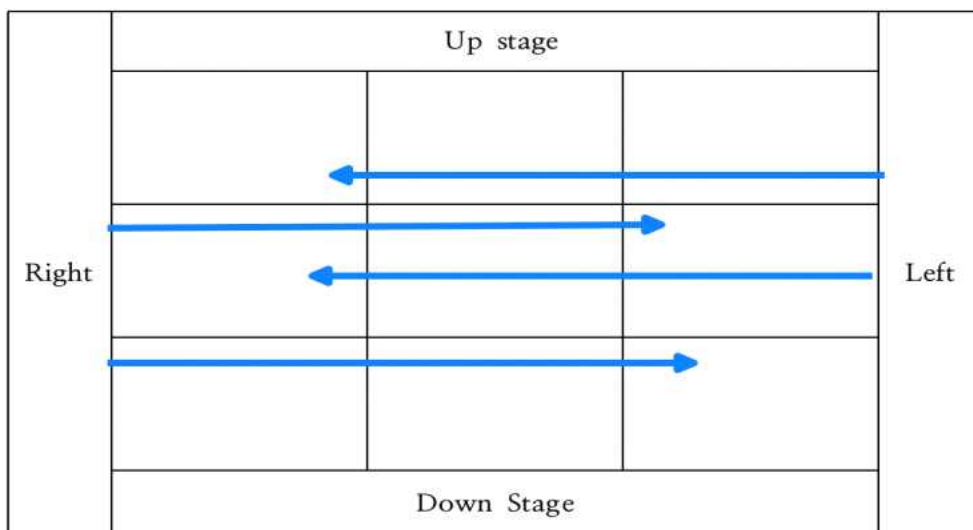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은 3장의 동선이다. <그림4-25>는 무용수의 동선이며, <그림 4-26은> 4명의 타인들의 동선이다.

<그림4-25> 3장 ‘나를 바라보다’ 무용수 동선



<그림4-26> 3장 ‘나를 바라보다’ 타인 4인의 동선



4.3.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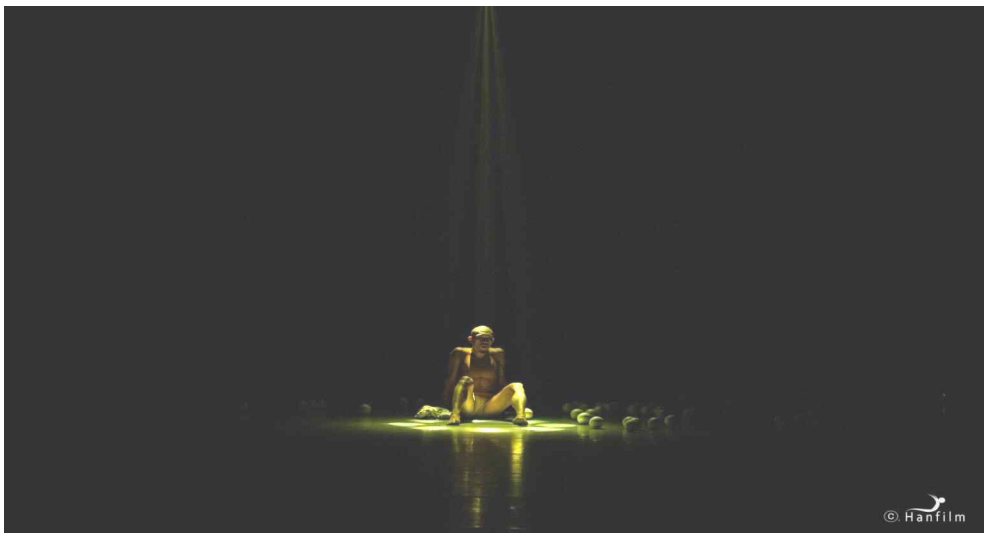
3장에서 음악은 2장에서의 음악이 연결되어져 구성되어 있다. 3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무용수가 하의를 탈의하는 장면에서 음악은 변곡점을 맞고 그 동안 쌓여온 사운드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음악의 구성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운드가 공간감을 채워주게 되는 형식의 음악이며, 무대 위 무용수의 모습에 집중 할 수 있게 만드는 연출을 의도하며 사용하였다.

음악은 다시금 관객의 시선을 무용수에게 집중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4.3.4 무대 장치 및 조명

마지막 3장은 엔딩 장면으로 분위기를 무대 위 무용수에게 집중 시킬 수 있도록 연출 하였다. 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포커스를 무용수가 위치한 무대 중앙으로 집중 시켜 연출하였다. <그림4-27> 작품의 엔딩 장면으로 노란조명과 초록색조명을 섞어 사용하여 분위기를 집중시켰고, 작품의 전개 상 켜졌던 많은 조명들을 역 순으로 하나씩 줄여나가며 엔딩 장면에서 무대 중앙 상광을 사용하여 무대 중앙에만 빛을 사용하였다. 무용수의 몸을 사실적으로 들어내면서 동시에 조도를 이용하여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엔딩을 연출 하는데 사용 하였다.

<그림4-27> 3장 ‘나를 바라보다’ 엔딩



[표4-3] 3장 ‘나를 바라보다’ 세부분석

조명방향: 

조명			이미지	세부분석
Right	Up stage	Left		4명의 타인들이 등장하고 무대에 소품들을 치우는 모습으로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흔적들이 치워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표현함.
Right	Down Stage	Left		조명의 구역이 좁혀지며 무용수를 집중한다. 무대에 홀로 남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모습. 3단계를 거쳐 진정한 나의 의미를 찾음을 표현.

V. 결론

본 연구는 무용 창작 작품 「I AM」에 대한 표현방법 연구와 작품분석을 다루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을 구상하며 니체가 말한 3가지 상징을 이미지화 시키고 움직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제작 하였으며, 작품의 내용과 의도에 따른 무대사용, 소품 등 표현요소들의 사용이 적합하였는지 연구 작품을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통해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소품의 활용이 작품 전체를 설명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실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면서도 소품을 의미적으로 관객에게 주입시키는 것 보다 무대 소품을 통해 관객이 직접 본인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 할 수 있는 무용 창작 작품으로써 접근하였다. 본 연구자가 작품 안에서 소품 안에 담았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짊어져야만 했던 짐이면서도, 인간의 주체할 수 없는 욕구들이었다. 그 소품들에 의해 무용수가 짓눌려 있거나, 그것들을 피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장에서는 소품에 개의치 않고 본인의 신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구성을 통해 외적인 것 보다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둘째,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하는 3개의 상징들을 최대한 이미지화 시키고 춤 언어로 표현 하는 것 이였다. 니체의 철학은 사유의 산물로써 그 중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작품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였다. 3개의 상징들이 내포한 의미를 연구하고 그에 적합한 형태의 움직임 언어를 찾아야 했다.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 생활 패턴, 움직임, 습성들을 연구하고 니체가 상징한 3가지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움직임들을 도출하여 표현하는데 집중하였다.

1장에서는 낙타의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무게를 버티고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중점을 두었고, 2장에서는 사자가 가진 상징적인 이미

지를 춤의 에너지로 움직임을 시키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고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인간 모습 그대로,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 움직임, 음악, 조명 모두 제한점을 두게 하여 숨 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사유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단계별로 변화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며, 전체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통해 관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상징적 이미지를 움직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단순한 이미지 혹은 동작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선 많은 여과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함축시키는 작업임과 동시에 안무가의 안무의도가 명확할수록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빠르게 찾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 낙타처럼 받아들이고 인내 할 줄 도 알고 사자처럼 포효하며 기존의 것들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세상 혹은 삶을 유희로 받아들일 때 무한한 상상력과 생명력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한 치 앞도 예측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무한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이 작업을 통해 니체의 인간정신변화 3단계를 공부하고 작품을 연구하며 내가 왜 춤을 추는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자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를 갖지 못한다는 말처럼 인간 스스로가 나는 어느 단계에 있으며 무엇이 나를 규명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지를 한번쯤은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공만을 위해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빠르고 무한경쟁 속 에서도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볼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야 말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제일 현명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다. 이번 작품을 창작 및 연구 하며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또 이 작품을 통해 철학적 이론을 토대로 움직임 언어로 만들어내고 작업함으로써 무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으며, 이 작품을 발전시켜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무용극으로써 발전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용예술을 또 다른 학문의 시각으로써 바라보고 접근 할 수 있는 부분과

단순히 이미지와 짧은 식견으로써 접근 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 고민해 보지 않았을, 고민해 보지 않은 것들을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세상에는 예술을 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춤으로써, 무대예술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앞으로의 예술 활동이 보다 폭 넓은 예술의 학문적 시각을 가진 예술가으로써 활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려 노력 하려 한다.

참 고 문 헌

- 고병권 (2003).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서출판 그린비.
- 김문애 (2003). 『무용예술과 안무기법』. 한글.
- 김소연 (2015). 무용 창작 작품 “굴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 (2014). 『조명의 미학적 원리와 방법』. BM성인당.
- 김진묵 (2006). 『김진묵과 함께하는 세계 명상음악 순례』. 정신세계사.
- 도리스 험프리, 송린(역) (1999). 『현대무용 안무론』. 현대미학사.
- 서현석, 김성희 (2016). 『미래예술』. 작업실유령.
- 신상미 (2013).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우광혁 (2000). 『무용과 음악이 만날 때』. 도서출판 예술.
- 이진우 (2015). 『니체의 인생 강의』.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이진우 (2018). 『니체』. (주)북이십일 아르테, p 33.
- 장혜숙 (2018). 『무대의상 디자인』. 연극과 인간.
- 조승미, 오을자, 박경숙 (1995). 『무용제작법』. 금광.
- 프리드리히 니체 (2000). 정동호(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전집 13). 책세상.
- 프리드리히 니체(2001). 김미기(역).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 (니체전집7), 책세상.
- G,체니/자넷스트레이드(1994). 김귀자/백현순(역). 『무용창작의 기초적 접근』. 현대미학사.

[인터넷자료]

<https://blog.naver.com/avatua2012/222012130968>

연합뉴스, 임형두(2004). 〈삶의 균형 위해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 연합뉴스
(2004.08.05.)

애틀란타 중앙일보, 정석민(2020). 〈스피드시대 속에서의 삶의 걸음걸이〉. 중앙일보
(2020.09.26.)

부 록

부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I AM
일시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7시
장소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안무 및 출연	권 혁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	Hanfilm
소요시간	16분 00초

부록 2. 공연 팸플릿

HANSUNG UV

MOVEMENT MOVEMENT

**2020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 작품 발표회**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PM 7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
Hanfilm

주최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삼선동2가) 한성대학교



권혁 김송연 박민지 박지혜 이수빈

Kwon Hyuk

작품 제목 |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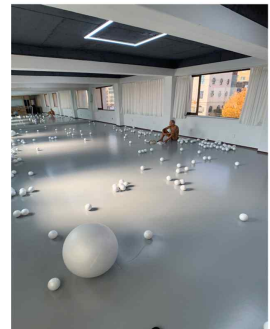
작품 내용

인간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인식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인식이다.

니체의 [인간정신변화의3단계]를 모티브로

초인의 경지에 이르고 싶은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 작품을 만들며

이번 졸업작품을 만들며 많은 것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나의 움직임, 나의 인무를 통해 세롭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
또 다른 학문의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었다.
나의 작품 주제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고민해 보지 않았을,
고민해 보지 않은 것들을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학위 청구 졸업작품의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니체의 인간 정신의 변화의 3단계와 나의 움직임과
나의 안무적 능력의 활용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류적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니체의 철학을
괴연 나의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비록 나의 작품이 그의 철학을 100% 설명할 순 없지만
이 작품을 통해 조금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을 보는 분들 또한 나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은 쉽게,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길 바라는
한 인간의 모습을 느끼길 바라며 사유의 시간을 갖길 원하며 작업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완벽할 수 없지만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다.

이 작품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석순 교수님, 김남용 교수님, 박재홍 교수님
그리고 저의 영원한 스승님어신 박만숙 교수님과 강경모 교수님, 정영지 선생님.

그리고 저의 삶에 함께 해주신 "시나브로 가솔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무 및 출연



권혁

지도교수 : 정석순 교수님

ABSTRACT

Analysis of Dance Work 「I AM」

Kwon, Hyuk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Analysis of dance work 「I AM」 based on Friedrich Nietzsche as a motif and work 「I AM」 reference was made to Friedrich Nietzsche's 3 of human mental change.

This thesis is a work that expresses the process of becoming an overman. We are currently living in infinite competition in a rapidly changing world.

I felt that speed and competition were being forced and thinks that individuals themselves should not lose their human nature.

Therefore, i researched and created this work to remind many people of this, hoping to be an individual who can slow down the pace of life and look back on oneself.

Friedrich Nietzsche compared the overman as a child in the 3 of human mental change and expressed that overman as a person who enjoys life through affirmation.

I reflected Friedrich Nietzsche's 3 of human mental change spirit in the appearance of human life also created a process in which humans accept and strive for their natural form.

It is work 「I AM」 about the process of humans accepting and striving for themselves Human beings overcome all difficulties and expressed acceptance of themselves.

In the work 「I AM」, the real overman is not a special being, but a child like pure person and the person who can look back was designated as Overman.

The audience can ask themselves at what step they are.

This researched it hoping that it would be a time for the audience to think about themselves.

Nietzsche's philosophy is well known for being difficult to understand.

Therefore, this composed performance work is designed to make it easy to understand Nietzsche's philosophy.

The habits and movements of camels and lions were investigated to infer conclusions and images that are best suited to the work.

I focused on transferring the message of the work by substituting a subjective opinion with Friedrich Nietzsche's 3 of human mental change as a motif.

Chapter 1 The subject and contents of the work were imaged using the body and props of the dancer.

In chapter 2, the subject and content of the work are clearly expressed in the language of movement.

Chapter 3 is the conclusion of this work, and the image of the overman that this researcher wants to convey is expressed.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many people have recognized the lives of people who cannot afford to and have to constantly compete.

Through this work, the researcher hopes to slow down the pace of life

for a while and become a person who can reflect on oneself in a competitive society.

I wanted to remind us that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outside should start from the inside mind of the human being.

So researched and created, hoping that many people will have time to think about themselves through the process of trying to become an overman.

Through the process of human beings trying to become an overman, Researched in the hope that many people will have time to think about themselves.